

##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며

1956년 창간된 月刊『考試界』가 2020년 6월호로써 창간 6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64년 동안 月刊『考試界』를 애독해 주셨던 수많은 독자들, 좋은 글을 보내 주신 교수님들과 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 말씀을 전해 드린다.

6·25 전쟁으로 전국이 황폐했던 1950년대 말, 창간된 月刊『考試界』가 그 동안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었다. 지난 60여년 간 법조인·고급 공무원 선발을 책임져온 사법시험의 폐지와 행정(외시)고시의 축소, 종이책과 오프라인서점의 감소, 유튜브와 같은 영상플랫폼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도 64년을 한결같이 국가 우수인재 층원의 역할과 한 차원 더 높은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오직 한 길만을 달려왔다는 사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일이다.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성원하고 응원하여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린다.

오늘날 법조계는 유례없이 우울하고 암울한 현실이다. 헌법재판관은 ‘사법에 의한 입법’까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선출한 진보적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의 숫자가 위헌정족수인 6명이 되어 민주적 정당성에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애자 처벌법, 사형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양승태 前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사건으로 흑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100여

명에 달하는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심지어 전직 대법관들까지도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신설법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많은 법조인들은 지금의 공수처법은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가족과 퇴직한 사람까지 제한 없이 수사대상을 확대한 점, 판사·검사·경찰(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 점,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공수처장과 차장임명을 규정한 점, 헌법상 위임규정이 없는 수사처규칙을 국회입법으로 허용한 점, 수사기관의 즉시 통보 및 이첩 의무를 부과한 점 등을 거론하며 “심각한 위헌성을 띄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최근 법무부가 전년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소폭 늘린 것에 대해 “실패한 로스쿨제도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4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합격률 50% 이상을 보장하는 공개경쟁 시험이 있는가?” 반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로스쿨제도의 실패로 사법시험 부활과 신사법시험 도입을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8회 변호사시험 때는 합격률 50.78%를 보였다가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자가 77명 늘면서 합격률도 53.32%로 오른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점수

## 정 상 훈

- 月刊『考試界』발행인
- 도서출판 고시계사·미디어북 대표
- 법무경영교육원 원장
- 한국잡지협회 교육원 원장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유라시아세계본부 지원의장



의 기준이 너무 낮다고도 주장하였다. 이들은 법무부가 이번 시험합격 기준점수를 만점 1660점 대비 900.29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23점'이라며 "국민들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어 "일반대학교의 교과목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60점을 넘어야 한다."며 "이처럼 변호사시험 문제의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춘 합격자들을 국민들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4·15 총선 결과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어느 시장가 상인이 대통령 면전에서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작금의 '거지 같은' 경제는 코로나 사태 훨씬 이전에 시작되어진 것이다. 소득 주도성장,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탈원전 등의 졸속추진에 따라 한국경제는 이미 기초체력이 약해지거나 기저질환을 앓던 중이었다. 현 정부집권 이래 실업자는 줄곧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가구 가운데 절반이 각종 현금복지지원을 받게 된 이면에서 근로자의 가계부채는 큰 폭의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급공무원 증원과 질이 낮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고용절벽의 실상을 끝까지 감추지는 못할 것

이다. 언제부턴가 배급과 할당, 그리고 공유를 중시하는 국가주도 반칙실물 이념경제가 득세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노동의 신성함과 일자리의 엄중함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개인의 피땀, 민간의 창의력, 시장의 활력 또한 갈 곳을 잃고 있다. 한국갤럽 등 각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기록 중이지만, '경제정책'과 '일자리 창출'에서는 각각 1%에 그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月刊『考試界』는 오래전부터 잡지의 디지털화를 실천해 오고 있다. 미디어산업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잡지에만 매달려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종이매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종이책은 종이책 나름대로 고결함과 우아함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지식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형태로만 얻을 수는 없다고 본다. 결국 디지털이 아무리 앞서가도 종이책이 주는 감성적인 부분을 모두 채울 수는 없다. 앞으로도 月刊『考試界』는 종이잡지와 책은 유지되면서 디지털콘텐츠와 병행발전 할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드린다.

그 동안 저희 月刊『考試界』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애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00년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한다.